

##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

하나님의 진노는 곧 '그분의 거룩함에 반하는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혐오'이다.

— 제임스 패커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 중 하나는 '의'이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 즉 '하나님의 의'에 근거하여 인간을 판단하시고, 그에 따른 보응을 하신다. 하나님의 의에 합당하게 사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합당하게 살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왜냐하면 인간은 아담의 죄로 인해 본성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게 살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고로,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일 수밖에 없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죄인들에게 보내는 경고이자 은혜의 메시지이다. 저자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인들은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하다(13쪽)'고 강조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죄인들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자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이다.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은 죄인들이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인내하고 계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죄인을 벌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손에 붙잡고 있는 그들을 놓아버리는 순간, 그때부터 죄인들에게 영원한 형벌이 부여될 것이다.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영원토록 죄인에게 부여지는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지옥에서 죽음은 없다. '억겁의 세월동안(50쪽)' 고통을 계속 느껴야 한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 그런데 절망스럽게도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다. 그러므로 저자는 죄인들에게 경고한다. 완고한 '고집'과 '오만'을 버리고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라! 왜냐하면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는 것이 곧 살 길이기 때문이다.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의 방편에서 마련하신 단 하나의 방법이 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저자도 강조하지만,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 큰 긍휼, 사랑, 은혜는 백번 말해서 무엇 하겠는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맹렬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역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인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진노를 받으셨기 때문이다. 이 진리는 저자가 처음 말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일관되게 제시하는 은혜의 메시지다. 단, 믿음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인간의 공로는 전혀 없다.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체가 은혜이자 복음이다.

책을 통해 죄인이 받아야 할 형벌의 무서움을 실제적으로 깨닫고, 하나님이 마련하신 구원의 통로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